

# 「風 謠」 小考

尹 榮 玉

## <內 容>

I. 序 言

Ⅲ. 作品檢討

Ⅱ. 記錄의 理解

Ⅳ. 結 言

## I. 序 言

語釋의 人 考察 外에 「風謠」에 對한 研究는 別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sup>1)</sup> 이 “노래”는 鄉歌中 短形에 屬하고 語辭 自體도 極 單調한 것 같다. 그리고 한 作家에 依해 創作되기도 集團的인 群衆에 依하여 唱和된 것 같다. 그래서 一般的으로 民謠로 看做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諸家의 言及을 살펴 보면,

1. 風謠는 民謠다(梁柱東).<sup>2)</sup>

民謠로서 流行되던 것이 採錄된 뜻하다(趙潤濟).<sup>3)</sup>

2. 所謂 “風謠”라 하는 勞動謠는 韓國民謠의 가장 오랜 모습을 文獻上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池憲英).<sup>4)</sup> 分明히 勞動謠로서 傳承되었음을 말한다(徐在克).<sup>5)</sup>

3. 「泥土施主」가 되기를 바라는 鄉讚的 民謠라고 할 것이다(金東旭).<sup>6)</sup>

要컨데, 이 「風謠」는 門僧인 良志가 齋費를 얻고자 하여 檀越家 門前에서 불렀던 呪願의 佛歌이었고…… 高麗를 넘어서자 發展할 땅을 잃고, 다만 「風謠」로서의 傳承을 이어서…… 流行民謠에까지 強靱한 傳統으로 襲用된 것이 아닌가 한다(金

1) 池憲英 教授의 “鄉歌研究를 둘러싼 昏迷와 疑問”(忠南大 語文論誌 第一輯, 1972)에서 文獻批判의 인 깊은 研究를 찾아 볼 수 있다.

2) 梁柱東, 古歌研究, p. 488

3)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p. 42

4) 池憲英, “「風謠」에 관한 諸問題”(국어국문학, 41), p. 144

5) 徐在克, “風謠研究”(藏庵回甲論叢), p. 542

6)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p. 31

鍾雨).<sup>7)</sup>

위와 같이 三大別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1項>에서는 單純히 採録된 流行民謠로 보았으며, <2項>에서는 <1項>의 規定을 더욱 限定하여 勞動謠로 把握하고 있는데 比하여 <3項>에서는 民謠라는 面에서는 <1・2項>과 同一하나 鄉讚의・佛敎의 民謠로 把握하여 <2項>과 意見을 달리고 있다.

「民謠」라는 面에서는 <1・2・3項>이 意見의 一致를 보이고 있으나 <1項>은 除外하고 <2・3項>의 意見差를 살펴 보면,

<2項>의 意見은 「至今 土人春相役作 皆用之 蓋始于此」에 焦點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며,

<3項>의 意見은 「其塑靈廟之丈六也 自入定以正受所對爲揉式 故傾城土女 爭運泥土 風謠云」에 焦點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問題는 <爭運泥土>의 「風謠」와 <春相役作>의 風謠가 어떤 共通因자를 가졌기에 相異하게 解釋될 文脉 가운데 挿入되어 兩文脉을 連結되고 있는가 하는 點이다.

우리의 關心의 對象인 「風謠」는 一然의 <良志使錫>에 挿入되어 現傳하게 되는 것으로 「良志師傳」(三國遺事 紀異第二 善德王 知幾三事)이나 「良志法師傳」(三國遺事 塔像第四 靈廟寺丈六), 「良志傳」(前과 같음)이 傳하지 않고, 그것들과 <良志使錫>과의 關係를 確證의으로 把握할 수 없는 現在로서는 盡信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一然의 記述을 根據하지 않고는 「風謠」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一然의 記述을 根據하여 新羅 善德王代에서 高麗 忠烈王代(一然의 當代)에까지 傳려졌을 「風謠」의 性格을 社會的인 側面에 照應해 考察해 보기로 한다.

## II. 記錄의 理解

一然의 『三國遺事』 卷第四 “義解” 第五는 『三國史記』 “列傳”에 比擬해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良志使錫>은 “良志의 傳記”라 해도 좋을 것이로되, “使錫”이라 하여 良志의 神異함을 나타내기 위한 底意가 露出된 傳說이라 하겠다.

7) 金鍾雨, 鄉歌文學論, p. 47

傳說化하기 위한 方便인지는 몰라도 “未詳祖考鄉邑”으로 그 所從來를 어둠에 가려두고 그의 行蹟만 뚜렷이 드러내어 “神異莫測”하고 “神妙絕比”하다 表現하고, 그에 應한 檀越과 士女들의 感發을 例示하고 있다.

그리고 一然是 「風謠」의 始源을 靈廟寺丈六尊佛의 塑像과 結付시켜 놓고 있다. 靈廟寺創建은 善德王代의 大役事이니, 善德王과 靈廟寺 關係記錄을 살펴 본다.

- ① 此國于今不知佛法 爾後三千餘月 鷄林有聖王出 大興佛教 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墟 一曰金橋東天鏡林(興輪寺) 二曰三千枝(永興寺) 三曰龍宮南(皇龍寺) 四曰龍宮北(芬皇寺) 五曰沙川尾(靈妙寺) 六曰神遊林(天王寺) 七曰婿請田(曇殿寺) 皆前佛時伽藍之墟 法水長流之地<sup>8)</sup>
- ② 善德王三年春正月 新羅芬皇寺成…… 四年 新羅靈廟寺成<sup>9)</sup>
- ③ 善德之創靈廟寺 具載良志師傳 詳之<sup>10)</sup>
- ④ 善德王創寺塑像因緣 具載良志法師傳 景德王即位二十三年 丈六改金 租二萬三千七百碩 良志傳 作像之初成之費 今兩存之<sup>11)</sup>
- ⑤ (惠空) 一日將草索綯 入靈廟寺 繫結於金堂與左右經樓及南門廊廡 告剛司 此索須三日後取之 剛司異焉而從之 果三日善德王駕幸入寺 志鬼心火出燒其塔 唯結索處獲免<sup>12)</sup>
- ⑥ 文武王二年二月 靈廟寺災…… 三年五月 震靈廟寺門<sup>13)</sup>

①의 前佛時伽藍之墟라는 京都內의 七伽藍은 全部 眞興王代에서 文武王代에 걸쳐 國家의 大役事로 이루어진 護國寺刹들이며, 그 가운데 3個 寺刹이 善德女王과 關係가 있으며, 2個 寺刹을 善德女王이 創建한 것이다. 이 期間은 또 新羅가 巴야흐로 古代國家의 面貌를 갖추고 眞興王이 領土를 擴張하고 三國統一의 기틀을 잡아, 恒常 強國의 抑壓에서 萎縮되었다가, 雄志를 펴 統一을 準備해 가는 時期이다. 善德女王朝는 바로 이 中間에 位置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때는 半島에서 三國의 角逐에 시달리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新羅는 한편은 佛力을 얻기 위하여 寺刹을 建立하고 한편은 實力을 備蓄하기 위하여 花郎團을 組織하고 築城工事を 벌였던 것이다. 花郎

8) 一然, 三國遺事 興法. 第三 阿道基羅

9) 三國史節要

10) 三國遺事, 紀異 第二 善德王知幾三事

11) 三國遺事, 塔像 第四 靈廟寺丈六

12) 三國遺事, 義解 第五 二憲同塵

13) 三國史記, 新羅本記 第六 文武王

은 貴族集團에서 그 資源이 供給되었다면 築城工事 등의 用役은 被支配階層의 百姓들에 依하여 供給되었을 것이다. 戰爭의 威脅에서 벗어날려는 것이 支配階層이라 한다면 過重한 徭役에서 벗어날려는 것은 被支配階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斟酌을 다음과 같은 記錄에 連結지어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別本云 建福八年辛亥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步 則乃眞平王代始築而 至此乃重修爾 又始築富山城 三年乃畢 安北河邊築鐵城 又欲築京師城郭 既令具吏 時義相法師闡之 致書報云 王之政教明則 雖草丘劃地而爲城 民不敢踰 可以禦災進福 政教苟不明則 雖有長城 災害未消 王於是正罷其役(三國遺事 卷二 文虎王法敏)

王 一日 召庶弟車得公曰 汝爲冢宰 均理百官 平羣四海 公曰 陛下 若以小臣爲宰則 臣願潛行國內 視民間徭役之勞逸 租賦之輕重 官吏之清濁 然後就職 王聽之(同上)

위와 같은 時期에 處한 善德王代(男子 昶서리의 女主로서 더욱 好佛했을지도 모른다.) 靈廟寺의 創建과 良志가 結付되어 있다. 이 靈廟寺는 大刹로 國家에서 格別한 待遇를 받아서 靈廟寺 成典이 있었고 여러번 災害를 입었으나(上引文⑤⑥) 修營되고 上堂一人을 두었으나 景德王 때에는 判官을 두었던 일도 있었고, 이 堂上 外에 靑位一人(景德王이 錄事를 됨)이 있었으며 후에는 大舍, 史二人이 있었다. 또 이곳의 南에서는 五星祭를 행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靈廟寺가 國家的인 巨刹인데, 여기의 丈六尊佛과 天王像의 塑像과 寺額을 良志가 이룩한 것으로 되어 있다.

一然의 記述 가운데 “其塑靈廟之丈六也 自入定以正受所對爲揉式 故傾城士女爭運泥土”라 하여, 良志의 塑像에 傾城士女가 自發的으로 “爭運泥土”한 것으로, “爭運泥土”를 良志와 結付시켜 놓고 있다. 行文의 理가, 良志의 神異한 行蹟과 神妙絕比한 技藝 때문인 것으로 表現해 주고 있다. 그래서 傾城士女가 “爭運泥土”한 것은 塑像에만 必要的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寺刹建立의 大役事에 參與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關心의 焦點을 風謠에 돌려 必要的 部分의 一然의 記述을 옮겨 본다.

- ㉠ 其塑靈廟之丈六也 自入定以正受所對爲揉式 故傾城士女爭運泥土.
- ㉡ 風謠云 來如來如來如 來如哀反多羅 哀反多矣徒良 功德修叱如良來如.
- ㉢ 至今 土人春相役作 皆用之 蓋始于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文과 ㉡文은 自然스럽게 連繫되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風謠」를 唱和한 것을 傾城士女에 돌릴 수 있을까? ㉑-㉒文의 連繫보다는 ㉑-㉒文의 連繫가 行文으로 봐 더욱 自然스러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본다면 「風謠」는 오히려 “春相役作”과 關係가 더 密接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一然時代(至今)에 民間傳承으로서의 「風謠」의 活動狀況을 不完全하게나마 報告<sup>14)</sup>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一然은 이 「風謠」의 起源을 靈廟寺丈六佛의 塑像에다 두고 있다(蓋始于此). “蓋”를 冠해서 “推測”이란 嫌을 벗어날 수 없겠으나, 推測할 수 있는 根據는 있지 않았을까? 事實은 “蓋始于此”의 “此”가 무엇을 指示해 주느냐가 問題다. <丈六佛의 塑像>에만 局限하는 것 같으나 文外의 意味로 <靈廟寺創建>全體를 指示해 줄 수는 없을까? 後者라면 「風謠」가 <良志使錫>條에 挿入될 可能性이 稀薄하다 하겠으나, 앞서 引用한 ③의 “善德之創靈廟寺 具載良志師傳 詳之”한 것으로 보면, 良志는 비단 丈六尊佛이나 天王像만을 塑成한 것이 아니라 靈廟寺創建事業全體를 監督한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 때의 事實들이 良志傳에 收錄될 수 있으니 「風謠」는 爭運泥土하는 傾城士女들의 입에서만 불려진 것이 아니고, 靈廟寺創建의 大役事에 參與한 群衆의 입에서 불려지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推論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 몇가지 問題부터 먼저 살펴 본다.

「風謠」는 아무래도 <良志使錫>의 “風謠云……” 以下の 노래 1首에만 該當하는 個個의 “詩歌의 題名”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風謠」라는 語彙가 內包하고 있는 意味內容은 무엇인가.

◦ 風;〔集韻〕 諷, 一曰諷刺, 或作風.

〔漢書, 田蚡傳〕 蚡乃微言太后風上.

〔注〕 師古曰, 風讀諷.

◦ 風謠;〔後漢書, 羊續傳〕 爲南陽太守, 觀歷縣邑 採問風謠 然後乃進.

〔魏書, 張彝傳〕 慮獨見之不明 欲廣訪於得失 乃命四使觀察風謠.

위의 用例들에서 類抽해 볼 때 「風謠」의 意味는 爲政者들이 施政得失을 살펴 볼 수 있는 民間에 流布되어 있는 一種의 民謠로, 바꾸어 말하면 一般百姓들이 爲政者들의 施政이나 거기에서 結果되는 그들의 삶과 그 삶에서 일어나는 爲政者들에 向한 感情을 吐露한 노래로서, 『高麗史』樂志 三國俗

14) 池憲英, 前揭書

樂條에 실려 있는 「東京」, 「長漢城」, 「禪雲山」, 「無等山」, 「方等山」, 「來遠城」, 「延陽」 등과 같은 內容의 노래일 것이다.<sup>15)</sup> 그래서 「風謠」는 ≪良志使錫≫條의 노래 뿐만 아니고 그런 類의 노래들에 붙여질 “歌謠群”의 名稱이라 하겠다.

다음 “土人”을 살펴 보면,

〔後漢書, 虞詡傳〕 其土人所以推鋒執銳 無反顧心者, 爲臣屬漢故也.  
〔南史, 周吳傳〕 江北諸城及穀陽土人.

等の 用例에서와 같이 이들은 土着民으로 京人에 對가 되는 鄉人, 그 鄉人 가운데도 良民 居住地인 村의 人民이 아닌 鄉·所·部曲의 奴隸的 身分을 가진 賤民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들에 대하여 李基白 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新羅에는 村단이 아니라, 鄉·所·部曲 등으로 불리는 地方行政區劃이 또한 설정되어 있었다. 村이 비록 力役에 시달리더라도 良人의 거주지인데 대하여, 鄉·所·部曲은 奴隸의인 身分을 가진 賤民의 거주지였다. 被征服民이나 叛逆罪人の 집단적 徙民 등에 의하여 생겨진 이들 賤民은 國家나 貴族을 위하여 農耕·牧畜·手工業 등의 노동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賤民의 集團的 居住地가 각지에 상당히 存在하였다는 것은 新羅社會가 지니는 特징의 하나로서 高麗에까지 그 유산을 물려 주고 있다.<sup>16)</sup>

이러한 土人들이 “春相役作”한 것으로 報告되어 있는데, “蠢”이란 單純한 “도구질”일까? “春”의 本意는 〔說文〕에서 말해 주듯이 “搗粟”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漢書, 惠帝紀〕 有罪當刑, 及當爲城旦春者.  
〔注〕 應邵曰, 城旦者, 旦起行治城, 春者, 婦人不豫外徭, 但春作米.

라는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有罪當刑”하는 刑으로 婦女에게 주어진

15) 詩經序에서는 “風者多出於里巷歌謠之作 所謂 男女相與詠歌 各言其情也”로 그 意味가 擴大된다. <文心雕龍>에서도 “匹夫庶婦 謳吟土風 詩官採言 樂官被律 志感絳皇 氣變金石 是以師曠貼風於盛衰 季札鑒微於興廢”이라 하여 있다.

16) 李基白, 韓國史新論, p.99

徭役의 一種으로 賦課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罰로서의 徭役인 “春”을 우리의 記錄에서도 그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景德王代 康州(今晉州一作剛州 則今 順安) 善士數十人求西方 於州境創彌陀寺 約萬日爲契 時有阿干貴珍家一婢名郁面 隨其主歸寺 立中庭 隨僧念佛 主憎其不職 每給穀二碩 一夕春之 婢一更舂畢 歸寺念佛(但言 己事之忙 大家之齋促 蓋出乎此)<sup>17)</sup>

위의 記錄은 佛敎說話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는 斷片의인 것이겠으나 現代와 같은 搗精方法이 없었던 當時이고 보면 無數한 戰爭에서 供給된 軍糧이나 支配階層들의 食糧의 搗精作業을 勘案할 때 이런 作業에 動員된 群衆을 能히 想像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集團의인 徭役에 動員된 群衆들의 口에서 “노래”가 불러졌을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事實은 「會蘇曲」의 例에서도 類抽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傾城士女”의 “士女”를 어떻게 보느냐도 問題다. “士女”를 ①男子와 女子, ②女子, 美人, ③紳士와 淑女로 解釋할 수 있으나<sup>18)</sup>, ②, ③으로 볼 때는 「風謠」와 距離가 멀어질 것 같다. ①로 볼 때 「風謠」를 굳이 丈六佛塑像에만 局限시킬 必要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여 「風謠」를 靈廟寺創建의 徭役에 動員된 群衆과 結付시킬 때, 統三前 國力과 領土의 擴張을 위한 佛寺의 建立과 築城等の 役事に 動員된 下層人民들의 口에서 고달픈 그네들의 心情을 어떤 形態로든 表現했을 것이고 그것이 善德王代 巨刹 靈廟寺의 創建役事に 動員된 群衆의 口을 통해서도 불러졌을 것이고, 그 役事가 “佛事”이기에(良志의 傳說에 附會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現傳의 形態와 같은 노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一然是 왜 “至今 士人春相役作 皆用之 蓋始于此”라 하였겠는가? 高麗도 新羅 以上으로 佛敎가 隆盛했고 寺院의 規模는 經濟의이나 人的으로 擴大되었으며 그래서 寺奴와 같은 存在들이 寺院에서 消費된 食糧의 搗精作業을 했을 것이고 그들의 口에서 傳來의 寺刹과 關係된 「風謠」가 불러졌을 것이며, 一然是 僧侶인지라 寺刹遍歷時에 耳得하게 된 것을 그 根源을 캐보니 靈廟寺創建 때 불러졌음이 밝혀졌거나, 傳來의 「良志傳」에 「風謠」가 있었는데 그것이 一然當代的 春婦들의 口에서 불러짐을 發見했거나 했을 것이다.

17) 三國遺事 卷五 郁面婢念佛西昇, 이와 같은 痕跡은 李朝小說中 <콩쥐, 팥쥐> 傳에서도 볼 수 있다.

18) 張三植, 大漢韓辭典

그래서 「風謠」는 “春相役作”하는 그 行爲와는 直接 關係가 없는 그 「詞」가 靈廟寺創建과 關係를 맺고 그 「詞」가 改作된 것이, 그것이 佛事와 關係가 있기에 寺院境內에서 고달픈 春婦들의 입에서 불러졌음직하다.

### Ⅲ. 作品檢討

來如來如來如	來如哀反多羅.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서러의더라.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셔럽다라.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셔럽다라.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서러 하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슬반 까라.
올따 올따 올따	올따 셔럽다라.
哀反多矣徒良	功德修叱如良來如.
서러의다 의내여	功德(을) 닷그러 온다. <sup>19)</sup>
셔럽다 의내여	功德 닷그라 오다. <sup>20)</sup>
서러 한 의내여	功德 닷그라 오다. <sup>21)</sup>
슬반 까이 무라	궁독 달가라온다. <sup>22)</sup>
셔럽다라 주비내여	功德 닷그라 올따. <sup>23)</sup>

지금까지의 몇몇 분들의 「風謠」의 읽음을 例示해 보았다. 여기에 形態의 規定이나 部分的인 語釋의 差異는 發見할 수 있으나, 그 大意는 相通함이 많다 하겠다. 詩歌인지라 한 字 한 音의 正確한 理解가 있고서야 그 全體를 把握하겠으나 現在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노릇이니 現在의 語釋을 바탕으로 本歌의 周圍를 맴돌 수 밖에 없다.

本歌는 現傳하는 詩歌中에 最短形에 속하며, 語彙의 數도 4種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反復되는 4個의 語彙도 正確히 理會하기는 힘들다.

五回의 反復에다 首尾에 雙貫하게 表現된 것이 <來如>다. 그래서 本歌의 特性은 <來如>의 五個의 反復에 依하여 情調가 持續되고 있는 것이

19) 小倉進平, 鄉歌及吏讀의 研究

20) 梁柱東, 朝鮮古歌 研究

21) 池憲英, 鄉歌·風謠新釋

22) 李 鐸, 鄉歌新解讀(한글, 통권 114호)

23) 金善琪, 향가의 새로운 풀이, 바람결 노래(현대문학 159호)

24) 徐在克, “風謠 研究”(藏庵回甲論叢 p. 541)



다.<sup>25)</sup> 이 反復은 群衆의 唱和에 리듬을 和合하게 하는 效果도 있겠으나, 意味의 強化, 즉 強力한 抒情的 自我의 情操를 表出해 준다 하겠다. 이 <來如>는 <哀反多羅>로 連結된다. <來如>와 <哀反多羅>는 並置되어 있다 하겠으며, <哀反多羅>는 뒤에 <哀反多>에 反復된다. 이러므로 <哀反多羅>도 그 情操에 強點이 주어졌다 하겠다. 그런데 다음의 <哀反多>는 <矣徒良>에 冠形되어 있는 것 같으나, 實은 <矣徒良>의 叙述語와 같은 役割을 한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功德修叱如良來如>가 또한 叙述語가 되어 <矣徒良>는 二重의 叙述語를 갖고 있는 셈이 된다. <矣徒良>를 中心으로 前後가 強力히 密着되어 있다. <哀反多羅>와 <哀反多>가 反復되고, 또 <~羅>라는 詠嘆的 語尾와 <矣徒良>의 <~良>라는 詠嘆的 助詞가 結付되어 嘆息의인 雰圍氣를 高潮해 준다. 처음에 反復되었던 <來如>가 <矣徒>를 叙述하고 있는데, 그 <來如>의 意圖를 <功德修叱如良>가 副詞語로서 提示해 준다. 抒情을 且置하고 文脈만 살핀다면, <哀反多 矣徒良 功德修叱如 來如>가 되겠다.

反復과 詠嘆의 表現으로 봐서 <功德修叱如良> 보다는 <哀反多>가 더 強하게 表現되었다 할 수 있고 <來如>와 <哀反多羅>가 並置로 連結된 것으로 봐 <來如>의 行爲가 非自意的인 것으로 感受된다. 그렇다면 <來如>를 限定하는 副詞語句 <功德修叱如良>도 非自意的인 것으로 感受되지 않을까? 여기에 다시 <哀反多>를 連結지어 볼 때 <功德修叱如良>는 反語的인 表現이 되지 않겠는가?

抒情的 自我는 <矣徒>로 <來如>와 <哀反多羅>의 反復에 담겨 있는 嘆息의인 雰圍氣와 <功德修叱如良>의 反語的 表現에 숨겨진 <뒤틀림의 感情>, 이것이 곧 本歌의 集團의 情操의 內容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는 單純한 民謠이거나, 佛讚的인 佛敎歌謠이기 보다는 當時 徭役に 시달리는 被支配 勞役階層이 集團의 感情을 隱然中에 吐露한 “風謠”로 보아진다.

#### IV. 結 言

「風謠」는 그것을 傳해 주는 記錄에 密着되어 있지않은 感을 주며, 그 앞뒤의 文脈에도 連繫가 잘 안되는 것 같이 보여진다.

善德王代라고 하는 社會的인 狀況을 留念해 두고 「春相役」의 意味를 被支

25) 李在銑, “鄉歌의 語法과 修辭”(鄉歌의 語文學의 研究), p.175

配階層의 徭役의 一形態로 看做하고 「風謠」自體를 分析해 볼 때, 우리는 『遺事』記錄의 文脈과 本歌의 實相을 어느 程度 把握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風謠」는 被支配 勞役階層들의 不滿의 吐露를 露骨의으로 表現하기 보다 佛事와 關係지어 <功德修叱如良>로 糊塗해 表現한 것으로 보이며, 被支配階層이 當하는 그런 徭役의 狀況은 高麗期에도 繼續되었고, 特히 「風謠」가 寺院과 關係된 노래이고 보면 一然當代에까지도 寺院周圍에서, 또는 그 境內에서 아직도 남의 佛供이나 齋에 바쳐질 供養食에 使用될 搗精作業을 하는 春婦들의 입에서 불려지던 것을 僧侶인 一然의 寺刹遍歷中 偶然히 耳得되어, “至今 土人春相役作 皆用之”하였거나, 「良志傳」에 傳하는 「風謠」를 春婦들의 입에서 確認해 “蓋始于此”하였을 것이다.<sup>26)</sup>

「風謠」는 <良志使錫>에 傳하는 노래와 같은 “類”의 名稱이지 <良志使錫>의 노래만을 指稱하는 名稱이 아님도 우리는 理解할 수 있다.

不足한 資料 억지스런 推論으로 「風謠」 理解를 더욱 混亂에 빠뜨렸는지 모르겠다. 同學 諸賢의 叱責을 기다릴 뿐이다.

26) 現傳 「風謠의」表記가 一然代의 것이라면 前者의 可能性이 크다.